

“인수위원 인선에 지역안배·여성 할당 고려 않는다”

尹 당선인 “여가부 역사적 소명 다해”
“대장동, 진상 규명 조치 있어야”
이르면 이번주 인수위원 24명 인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인수위원 24명의 인선이 이르면 이번주 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사 원칙에 대해 “국민을 제대로 모시기 위해서는 각 분야 최고의 경륜과 실력이 있는 사람으로 모셔야 하지 자리를 나눠먹기식으로 해서는 국민통합은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인수위 인선 발표 기자회견 중에 “인수위에 지역안배·여성 할당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윤 당선인은 “국민통합은 실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국민을 제대로 모시고, 각 지역이 균형발전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그걸 우선 원칙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고려할 부분들은 고려가 돼야지 (지역, 여성 등을) 우선으로 해서 하는 국민통합은 국가발전에 도움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가 된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관해서도 “과거에는 남녀의 집합적 차별이 심해서 아마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여가부를) 만들어서 법제 등을 통해서 역할을 해왔는데, 지금부터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불공정 사례라든지 범죄적 사안에 대해 더 확실하게 대응하는 게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가부는 부처로서 역사적 소명을 다 했다”며 부처 폐지 공약 이행 의지를 피력했다.

또 윤 당선인은 인수위 내 경제1분과와 2분과의 차이에 대해 “1, 2분과는 아마 전통적으로 나눠왔다. 1분과는 거시 재정 금융 쪽이고, 2분과는 산업을 위주로 한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총리 지명과 관련해서는 “총리 지명 문제는 새 정부 출범할 때 인사청문회까지 마치고 차질 없이 출범하게 정할 것이다. 지금은 인수위를 출범시키는 게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공약이었던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금액은) 기본이 1000만 원 정도는 될 것이라 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손실 내역에 대한 여러 기준을 잡아서 지수화, 등급화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며 “방역과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전부 아울러서 인수위원장께서 직할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부탁을 드렸다”고 당부했다.

또한 대장동 특검과 관련 “부정부패에 대한 진상 규명에는, 진상이 확실시 규명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라도 국민이 다 보시는 데에서 해야 된다. 거기에는 무슨 폼수라든가 그런 것도 없고, 나도 늘 주장해왔다 작년부터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지역·여성 할당에 대한 소신도 밝혔다.

그는 “국민을 제대로 모시기 위해서는 각 분야에서 최고의 경륜과 실력이 있는 사람으로 모셔야 하지, 자리를 나눠먹기식으로 해서는 국민통합은 안 된다”며 “국민통합은 실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국민을 제대로 모시고, 각 지역이 균형발전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하는 게 우선이다”고 말했다.

또 “(지역안배·여성할당) 우선으로 해서 하는 국민통합은 국가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 청년이나 미래 세대가 볼 때 정부에 대해 실망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인선 결과를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도 이날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인수위원은 24명 정도로 규정돼 있는데 이제 검증 작업에 서서히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24명에 대한 전체 공개는 이르면 이번주 안에 가능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 공동비대위원장 8명 중 절반 2030

광주 청년 기획사 김태진씨
n번방 추적단 박지현씨 포함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광주에서 마을·청년·창업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 기획사 김태진(39) 대표와 ‘n번방 추적단 불꽃’ 활동가 박지현(26)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내용의 비상대책위원회 인선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비대위는 당의 근본적 변화와 국민과의 약속 이행, 지방선거 준비 등 막중한 책무를 띠고 있다”면서 “청년·여성·민생·통합의 원칙으로 비대위 구성을 마무리 지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전체 비대위원 절반을 2030세대로 선임했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박 공동위원장에 대해 “온갖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불법과 불의에 저항하고 싸워왔다”면서 “이번에 다시 가면과 ID를 내려 놓고 맨 얼굴과 실명으로 선 용기를 보여줬다”고 소개했다.

윤 위원장은 “청년을 대표하는 결단과 행동이야말로 저희 민주당에는 더없이 필요한 소중한 정신이자 가치”라면서 “앞으로 성범죄대책, 여성정책, 사회적 약자와 청년 편에서 정책적

반을 이끌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박 공동위원장은 현재 코로나 확진으로 자가격리 중이다.

민주당 비대위에는 이 밖에 민달팽이 협동조합의 권지용 이사, 채이배 전 의원, 배재정 전 의원, 조웅천 의원 및 이소영 의원이 선임됐다.

이재명 대선 후보 광주 선대위 공동위원장을 역임했던 김태진 비대위원은 “이번 대선에 분열된 젊은 층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당을 쇠신해야 한다”면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인 호남의 열망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해 총 8명으로 일단 출범했고 향후 2명이 추가 합류할 예정이다.

윤 위원장은 “향후 새롭게 선출되는 원내대표와 지난 대선에서 대의원 총으로 우리 후보의 지지를 결정한 한국노총에서 노동 분야 비대위원을 추천해주면 이분들을 비대위원으로 추가 선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께 다시 사랑과 신뢰를 받는 민주당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 겸손과 성찰을 원칙으로 저희의 모든 걸 바꾸고 국민께 더 가까이 가겠다”며 “그 길에 저를 포함한 비대위가 앞장서겠다. 길 없는 곳에 길을 내고 벽을 만나면 문을 만든다는 각오로 민주당 쇠신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

“미국과 동맹 재건·일본과 관계 개선·중국과 관계 발전”

尹 당선인 외교 기조 변화 예고
기시다 일본 총리와 통화
미국 대사대리·중국 대사 만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1일 미국, 일본, 중국 등 주변 강대국과의 외교 기조 변화를 예고했다. 그는 미국과의 동맹 재건, 일본과 갈등 현안 해결을 통한 관계 개선, 중국과는 상호존중을 기반한 관계 발전을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크리스토퍼 벨 코소 주한미국대사대리를 만나 양국관계에 대해 “서로의 안보를 피로써 지키기로 약속한 국가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관계가 다시 자리를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제, 기후협력, 보건으로, 첨단기술 등 모든 의제가 한미 간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발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가 중국, 북한에 치우친 외교를 한 탓에 무너진 한미동맹을 재건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한미 협력 분야도 신기술, 글로벌 공급망, 우주 등 새로운 영역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이날 면담에서도 그런 의지를 밝힌 것이다.

윤 당선인은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관계가 최악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일본에 대해서는 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오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통화에서 “양국 우호협력 증진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며 “양국 현안을 합리적으로 상호 공동이익에 부합하도록 해결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현안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동원 배상 판결과 일본의 수출규제 등 갈등 현안을 양국 모두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하자고 한 것이다.

윤 당선인은 상하이미 주한중국대사와 면담에서는 “한중관계 발전을 위해 양국 지도자의 역할이 중

요하며 책임 있는 세계국가로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되기를 우리 국민이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과 외교가에서는 윤 당선인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 사이 균형 외교를 추구했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미국을 더 우선시하는 외교정책을 펼치면서 중국과 불편한 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다고 본다.

윤 당선인은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인한 중국과 갈등 봉합 과정에서 취한 ‘3불’ 정책(사드 추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체계·한미일 군사동맹 불참)에 대해 지난달 25일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윤 당선인이 당선 후 주변 4강과 접촉한 순서도 주목받았다. 당선과 취임 사이 공백이 없었던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미국, 중국, 일본 순으로 정상 통화를 했는데 윤 당선인은 전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이어 기시다 총리와 통화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http://www.greenfuneral.kr/

光州시민의 장례식장은, 그린장례문화원!

보내는 이의 효심과 그리움으로 다시찾는, 장의 名家

광주시청에서 10분, 용전사거리에 있습니다.

사전상담하시면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다!

그린장례식장 임소문 6선!

1. 호남·88·남해IC 진출구 전국 어디든 사통팔달
2. 동시 주차 1천대 분관 일체형 주차타워
3. 동시 최대 350명 장공 등 VIP전 객실 13개소 완비
4. 가격은 저렴하고 품격은 최고의 고감도 의전서비스
5. 세계김치문화축제 대통령상 수상 | 음식 맛 최고
6. 청주시 아너사사이어터 정회원 국민 나눔대상 수상

상담문의 250-4455

광주광역시 하서로 663길 97(용전동 1213-17)

봄에 떠나는 그리운 섬여행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거문도+백도

매주 금,토,일 광주출발 셔틀버스 운행

당일투어 1인 139,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199,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 승선문의: 061-834-3434 | 예약센터: 062-385-0515 | 아이티여행사: 062-382-8866